

# 언어문화 발전의 길

김병원

포항공대 교수

우리 국민의 언어력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고등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한 1학년생 59명의 한국어 실력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한다. 우선, 한국어 한마디를 듣고 이해하는 수준은 98%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 수준도 98%였다. 또, 표현력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문장 완성 실력도 98%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길게 이어진 말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은 겨우 77%였다. 또,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력도 겨우 80%였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자.

긴 말과 글은 설명으로 엮여져 나간다. 어떤 주장이나 중심내용에 대해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내용을 구조화한 것이 말이요 글이다. 만일 구조화된 설명이 없다면 그것은 여기서 논의하는 말과 글이 아니다.

그러므로, 긴 말과 글을 이해하는 언어력은 주장이나 중심내용의 설명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설명이란, 어떤 것을 쉽게 예를 든 것일 수도 있다. 묘사하거나 서술한 것일 수도 있다. 혹, 비교-비유하거나 논리적으로 전개 또는 인과관계를 논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설명의 방법을 사용한 말이나 글 내용을 쉽고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의미의 전달이 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잘 받은 이들이 한국어 말과 글 내용을 겨우 77%, 80%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음은, 당연히 그들의 언어 이해력에 큰 문제가 있음이요, 동시에 글을 쓰는 쪽에도 문제가 있음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듣고 읽는 언어생활이 활발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말하고 글 쓰는 일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언어문화의 향상을 꾀할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언어의 이해와 표현심리를 근거로 다음 세가지를 제의한다.

첫째, 이해는 그 내용에 관련된 배경지식에서 출발한다. 즉, 듣거나 읽는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배경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배경지식이 없으면 난해해지고 만다. 따라서 언사나 필자, 청취자나 독자를 모두 포함한 온 국민 전체가 공통으로 소유하는 기본 배경지식의 연구와 집중교육을 제의한다.

둘째, 말로 무엇인가를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경험과 말 듣는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그 능력이 신장되는 동시에, 그 능력은 곧 독서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먼저 말로 설명하고 말의 설명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자. 그러면 글도 더 잘 쓰고 독서도 더 잘하는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필자와 독자는 어느 면으로 볼 때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독자층 언어 이해력이 77%, 80%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필자의 손에서 쉬운 글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설명의 구조를 더 쉽게 전개하고 표현을 쉽게 하는 노력을 하면, 한국의 언어 문화를 선진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초점 2 80년대는 논쟁의 시대였는가

자료 4 既刊 논쟁집 총목차

시론 7 大衆詩, 그 출현에서 정착까지/박덕규

표지인물 8 「변혁시대의 사회철학」 펴낸 金泰吉 박사

확대서평 9 김용은 지음 「성 안트완느의 시련」—黃鉉產

서평 10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 研究」—朴賢緒  
데이비스 외 「체제비교사회학」—최재현

11 김지운 「매스미디어 政治經濟學」—柳一相  
하치근 「국어파생형태론」—高永根

12 崔喆 「항가의 문학적 해석」—林基中  
尹在根 「詩論」—김재홍

13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정현기  
유순하 「새 무덤 하나」—金泰賢

리포트 14 출판통계와 문화통계 바로 읽기—李重漢  
「통계로 본 우리문화」 「문화예술통계자료집」

연재기획 16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①

—일제하 일본의 경영서점을 통해본 도서유통구조

저자인터뷰 18 「民族主義原論」낸 차기벽 교수

신간抄 19 寓話와 사례 중심의 경제학입문서—이봉호  
그레이브스 엮음 「수필로 엮은 경제학」

이 책 그 사람 20 「韓國의 孝와 孝行」낸 韓泰源씨  
「굿바이 정순씨」의 작가 우선덕씨

21 「니벨룽겐의 노래」 완역한 허창운 교수  
포인트 펴낸 만화가 韓喜作씨

세계의 출판 22 소비에트 여성들의 역사적 평등·외

컬러 24 소설가 金源一씨의 書架

독자서평 26 강호경/문은경/이태문/안성익

28 璽工도서 코너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字안내/자료집/화제의 책/이색출판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기사색인

48 프리즘 (송상용)/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임영균